

# 조선조 중엽의 時調와 淡의 美

-退溪와 栗谷의 評語를 중심으로-

崔東國\*

## 〈目次〉

- |         |       |
|---------|-------|
| 1. 서언   |       |
| 2. 淡의 美 |       |
| 1) 枯淡   | 2) 沖澹 |
| 3. 결어   |       |

## 1. 서언

淡은 예술 風格의 極詣란 평가를 받아온 美이다. 특히 조선조 중엽의 시가작품에서 높이 평가한 미의 범주이다. 이 담의 미를 높게 거론한 이는 退溪와 栗谷이다. 양현의 淡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그 당시의 가단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로 枯淡, 沖澹, 平淡 등의 심미평어가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淡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주로 볼 수 있으나 서정성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풍격 淡에 대해 퇴계는 枯淡을 말했고, 율곡은 沖澹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심미의식의 차이에서 온 것이고, 또한 길은 淡하면서도 내용은 濃해야 하는

---

\* 인천대

표현상의 특질이 있어 淡의 미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淡하다고 해서 素朴한 것만도 아니고 소박하다고 해서 拙한 것이 아니다. 淡의 미가 淡 자체로서 風彩도 없고 향기도 없는 것이라면 미적 범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담은 본질적으로 素朴·拙로만 머물지 않고 至味를 내포하기 때문에 담의 미에 대한 이념과 내용을 규명하고 그 각각의 미적 내용을 변별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 2. 淡의 美

이 담의 미를 논의하기 위해 龔巖의 어부단가를 전제한다.

龔巖에 올라보니 老眼이 猶明이로다  
人事이 變흔들 山川이 썩 가실가  
巖前에 某水某丘이 어제본 듯 ㅎ예라

〈漁父短歌, 二〉

이 작품은 어부단가로 농암이 사환생활을 두고 고향 예안에 돌아와 산수를 돌아보고 그 감회를 읊은 작품이다. 농암은 이를 ‘老眼이 猶明이로다’ 고 했는데 이는 산수에 대한 미적 자각이자 감동이다. 이는 사환생활에서 벗어나 농암 주위의 산수를 노안으로 읽은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노안은 현실적 對物意識과 욕망이 유예된 심리상태에서 오는 審美眼이다.

靑荷에 ㅼ 불뵈고 綠柳에 고기떼여  
蘆荻花叢에 비미야 두고  
一般淸意味를 어늑부니 아ㄹ실고

〈漁父短歌, 三〉

농암은 현실에서 동경하던 귀거래를 실천했다. 이 작품은 경국제민이란 정치적 가치에 매여 있던 자신을 자유케 하고, 답답한 심정과 심미 의식에서 一般淸意를 형상화한 것이다. 노안이 열림으로써 인식된 일반 청의다. 이는 현실에서 영달한 후 귀거래하여 일반 생활정조로 돌아와 소박한 강호생활에서 오는 경계이다. 부귀 영달을 누리고 돌아와 소박한 생활에서 자각된 일반청의의 미가 곧 淡이고 自然이다. 그는 자연에서 知足의 삶을 영위하면서 卽景生情의 意境을 청신하게 형상화하였다.

농암 이선생은 나이가 70이 지나서 벼슬을 버리고 분수가에 염퇴했다. 왕이 여러차례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다. 부귀를 뜯구름처럼 여기고 物外에 고상한 회포를 붙혔다. 항상 조각배를 타고 안개낀 강위를 즐겁게 읊조리거나 아니면 낚시터를 배회하며 갈매기와 벗이 되어 세속적 욕심을 떨쳐버렸고 고기들을 보면서 기쁨을 만끽했다. 그리하여 江湖之樂의 진수를 터득한 것이다.<sup>1)</sup>

이는 부귀를 부운에 비기고 物外에 고상한 회포를 붙여 강호의 진락을 얻었다는 퇴계의 평이다. 이러한 생활상은 조선조 강호시가의 성격과 미의식, 미적 범주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 1) 枯 淡

고담은 퇴계선생이 지은 작품을 자평한 風格이다.

선생의 시는 처음에는 매우 맑고 화려하였으나, 뒤에 와서는 화려한 것은 깎아 버리고, 오로지 진실하고 장중하며 담박한 데로 돌아가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중략)…… 華와 實이 서로 견비하여 문질이 중정에 부합되었다……(중략)…… 요컨대 그 귀착점은 粹然하여 하나같이 正에서 나왔다.<sup>2)</sup>

1) 李賢甫, 龔巖集 卷三 歌辭 書漁父歌後

2) 李滉, 『退溪全書』, 「言行錄」 권6, 「言行通述」, 其詩初甚淸麗 旣而剪去華靡 一歸 典實莊重簡淡 自成一家...華實相兼 文質得中... 要其歸則又粹然一出於正

선생이 시 짓기를 좋아하시어 평생에 공을 들임이 매우 많았다. 일찍이 말씀하시되, “내 시가 枯淡하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시에 힘쓰미 자못 깊은지라 그런 까닭에 처음 보면 비록 冷淡하나 오래 보면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하셨다.<sup>3)</sup>

枯淡은 겉은 冷淡하나 속은 맛이 있다는 것이다. 즉 고담의 맛은 겉으로는 맛을 느낄 수 없고 담담에서 빠져나와야만 되는 味外之味를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味外之味의 味는 퇴계의 경우 華麗, 典實, 莊重한미를 고담으로 아우른 것이다. 이러한 미는 평정에서 起興된 정감에 중점을 두는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出於正”이라고 한 것 같다. 正은 “性情의 醇正”을 이른다. 고담은 醇味에서 오는 풍격이다.

퇴계가 말한 冷淡은 華靡한 것을 깎아 버린 데서 오는 맛이다.

훌륭한 곡식은 돌피 익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嘉穀莫用穉熟美
가는 티끌도 오히려 거울 닦아 산뜻하게 함에 해로우니.	纖塵猶害鏡磨新
정에 지나친 시어는 모름지기 깎아버리시지요,	過情詩語須刪去
노력하여 공부해서 저마다 날로 새로울지니.	努力工夫各日新
	「贈李叔獻」

위의 ‘華靡剪去’와 ‘過情詩語須刪去’는 같은 표현 방식이다. 화미와 과정은 사물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敬의 내용인 勿正, 勿忘, 勿助長의 正, 忘, 助長의 개입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선생의 필법과 시창작의 태도 또한 朱子를 모범으로 삼았다. 비록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글자 한자를 쓸 경우에도 점과 획을 정중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자체가 방정하고 단정했다. 우연히 한수를 읊을 때에 일구일자라도 정치하게 생

3) 李滉, 같은 책, 「言行錄」, 卷5, 類篇. “先生喜爲詩 平生用功甚多 其詩勁健典實 不銜華彩 初看似無味 愈看愈好 嘗言吾詩枯淡 人多不喜 然於詩用力頗深 故初看雖似冷淡 久看則不無意味

각하여 숙고를 거듭하여 가볍게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sup>4)</sup>

퇴계가 시를 지을 때 일구일자를 얼마나 신중히 숙고하였는가 하는 그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담이 지니는 자연성과 소박성 때문에 그 내용에 노장적 풍미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옛 山林을 즐긴 자를 보건대 둘이 있다. 玄虛를 그리워하고 高尚을 섬겨 즐기는 자가 있고, 道義를 기뻐하고 心性을 길러서 즐기는 자가 있다. 전자를 따르다면, 潔身亂倫에 흘러 심한즉 鳥獸와 무리 지어도 그릇된다고 생각하지 않게됨이 두렵고, 후자를 따르다면, 좋아하는 바는 糟粕뿐이요, 그 진할 수 없는 妙에 이르러서는 구하면 구할수록 얻을 수 없으니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오. 그러나 차라리 후자를 위하여 스스로 힘쓸지언정 전자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는 않겠다. 또한 어느 여가에 세속의 번거로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으랴.<sup>5)</sup>

산림에 들어 현실을 망각하고 노장의 무위자연에 흘러 조수와 무리 지어도 그릇되게 생각하지 않게됨을 비판했다.

보내준 편지에서 말한 涵養 體察은 우리 儒家의 으뜸 되는 취지이다. 天理와 人事 가 본래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것은 좋다. 다만 悟자를 애써 말하였는데, 이것은 葱嶺에서 가져온 頓悟 超越을 말하는 佛家의 방법이지 우리 유가의 主 旨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니, 전에 말한 '억지로 찾아 助長한다'는 병통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면치 못하는 것 같다.<sup>6)</sup>

4) 李滉：退溪全書 言行錄 卷五 類編，先生寫字作詩 亦遵晦庵規範 雖偶書一字 莫不整頓點畫故字體方正端重 雖偶吟一絕一句一字 必精思更定 不輕示人 (良錄)

5) 李滉 退溪全書 卷3. 陶山雜詠記，觀古之有樂於山林者 亦有二焉 有慕玄虛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顯心性而樂者 由前之說則恐或流於潔身亂倫 而其甚則與鳥獸同羣不以為非矣 由後之說則所嗜者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則愈求而愈不得於樂何有 雖然寧為自勉不為彼而自誣矣 又何暇知有所謂世俗之營營者而入我之靈臺乎

6) 李滉 退溪集/續集，卷5. 自省錄，答南時甫，見喻涵養體察 吾家宗旨天理人事本非二致善矣 但悟之一字力主言之此則葱嶺帶來頓悟家法吾家宗旨未聞有此然則向所

이 글은 퇴계가 남시보에게 준 편지의 일부다. 학문을 궁리함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의 평이하고 명백한 곳에 나아가 간파하여 숙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미 무위자연을 말함이 도를 벗어나 어긋남인데 어찌 禪空에 떨어짐을 스스로 말하느냐 하면서 佛家の 궁리태도도 역시 배척했다.

이와 같이 퇴계는 일자일구를 신중히 하면서 지나친 정을 깎고 형식을 간결하게 할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얼마나 신중을 기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작품은 반복해서 음미해야만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

陶山十二曲의 前六曲 중 其六을 예로 든다.

春風에 花滿山호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름과 흥가지라  
 호물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니 그지 잇슬고

초장 四時, 중장 물아일체, 종장 어약연비 운영천광. 초장에서 사시순환의 整然함을 보고 흥을 일으키고 중장에서의 물아 합일의 흥취를 드러내고 종장에서 流行自然의 活潑을 보고 감탄했다. 整然과 활발한 자연의 理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典故(中庸의 費隱章)를 활용했음에도 역시 자연스럽다. 천지자연의 완결된 시공간을 형상화하고 그 속에 생성변화하는 자연법칙의 유행을 함의케한 것은 응혼하기 그지 없다. 이러한 작품은 자아가 '많은 경험을 하고 충분히 유람하여 충실한 수행을 쌓아[體察] 아름다운 산과 강이 가슴속에 역력해지면 그것을 우주적 차원에서 그려내는 것이다.'<sup>7)</sup> 이 구조는 강호 시조의 한 전형이 된다. 이런 경치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치이고 표현 또한 簡淡하다. 그래서 누

謂強探助長之患恐

7) 張法, 유중화 외 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p.376.

구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일이다.

愚夫도 알며 흐거니 께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못다 하시니 께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냇등에 늙는주를 몰래라

〈도산십이곡 後六曲中其六〉

우부의 생활 중에서도 능히 실행되는 일 그 가운데 자연의 理를 자각하는 일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聖人 곧 愚夫, 愚夫[일상의 평범한 생활]속에 미적 극치를 그려내는 일, 여기서 고담의 미가 성립된다. 이는 “담백한 삶의 정신 속에서 절대적 가치의 미학을 성취”<sup>8)</sup>하고자 한 퇴계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담의 속성 중 무위자연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도 제거되는 결과도 낳았다. 소식이 말한 外枯而中膏의 평과 상통한다.

고담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걸쪽은 메마르면서도 안쪽은 기름지고 담담한 것 같으면서도 실은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연명과 자후 같은 부류가 바로 그리하다.<sup>9)</sup>

시 창작은 화려한 언어수식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간단하고 소박한 형식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을 표현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앞의 ‘春風도 花滿山하고’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바 걸은 고담하지만 속은 웅혼하면서도 勁健한 미를 함축하고 있다. 至味가 고담으로 바뀐 경지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작품은 반복해서 음미해야만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감상자 역시 고담한 심경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8)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대출판부, 1998, p.247.

9) 蘇軾, 評韓柳詩, 所貴乎枯淡者 謂其外枯而中膏 似淡而實美 淵明子厚之流是也

## 2) 冲澹

율곡은 자신의 문학관과 풍격론에 대한 견해를 『精言妙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시의 근원이 오랫동안 막힘에 지엽적인 흐름과 갈래길이 많이 생겨나서, 학자들이 어지러이 현혹되어 그 (바른)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최고의 정수이자 본보기가 될만한 시를 채록하여 모아 8편으로 만들었다하고 제1격인 元字集에서 충담의미를 논했다.

이 選集에서 선정한 시는 冲澹蕭散을 위주로 하고 수식을 일삼지 않는 시들이기 때문에, 自然스러운 가운데 깊은 妙趣가 있어서, 그 古調古意를 아는 사람이 적다. 唐·宋 이후 여러 작품의 品格들이 혹은 옛날에 미치지 못하나, 그 사이에 近體詩가 있어서 대개 雕琢의 기교가 없고 저절로 聲律에 맞았다. 그러므로 병행하여 선정하였다. 이 選集을 읽으면 그 淡泊함을 맛볼 수 있고……<sup>10)</sup>

율곡은 『정언묘선』 서에서 충담을 첫머리로 삼은 이유를 시의 원류를 알게 함에 있다하고 풍격 중 제1격에 놓았다. 충담소산은 수식을 일삼지 않고 조탁의 기교를 억제하여 자연스런 가운데 깊은 묘취가 있고 이를 읽으면 담박한 맛을 느낄 수 있다하였다. 이 서경은 산수를 蕭散하게 형상화하고 그 형상에서 충담의 묘취를 깃들게한 意境이다. 그 묘취는 담박한 맛을 우려낸다. '자연스런 가운데 깊은 묘취가 있어서'[自然之中 深有妙趣]의 自然은 미적 이념이고 冲澹은 미적 내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自然의 相은 충담소산한테 충담소산의 상은 회식하고 조회수조하면 그것이 일그러지고 만다. 즉 形似가 억제되고 문사가 간결하여야만 이치에 맞게 된다. 문사는 간결하면서 평이한 말을 구사하지만 그 뜻하는 바는 심원하다.<sup>11)</sup> 따라서 冲澹의 冲은 깊이와 넓이를 주

10) 李珣, 「精言妙選」, 精言妙選總序, 元字集曰 此集所選 主於冲澹蕭散 不事繪飾 自然之中 深有妙趣 古調古意 知者鮮矣 唐宋以下 諸作品格 或不逮古 間有近體 而皆無雕琢之巧 自中聲律 故並選焉 讀此集 則味其淡泊...



면서 묘취를 발현케 하는 요인이다.

시의 풍격으로서 충담은 '수사상 분식이나 조작이 없이 화평하고 자연스런 정감의 표출에서 나타나는 미감'<sup>12)</sup>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이 제1격으로 내세운 풍격 충담소산은 그 연원이 朱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를 지으매 반드시 陶·柳의 좋은 점을 따라야 한다. 이와 같지 않으면 소산충담의 취의가 드러나지 않는다.<sup>13)</sup>

주자가 쓴 충담의 연원은 老子에 있다.

도는 비어 있어 이를 써도 항상 차지 않고 깊어서 만물의 종인 것 같다.<sup>14)</sup>  
크게 찬 것은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이 다하지 않는다.<sup>15)</sup>

沖은 道의 虛한 것을 형용한 것이다. 허한 모양의 道體가 만물의 근원과 같다는 것이다.

다음, 無闕琢技巧는 기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는 '大巧若拙(老子45)'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일이다. 율곡이 말한 충담한 경계에서 담박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이 拙[자연(自然)]에서 나오는 것이다. 唐의 寶蒙도 '拙' 不依致巧曰拙(語例字格)이라 하고 줄은 정치하고 교묘한 것에 의지하여서는 줄의 景을 드러낼 수 없다고 했다. 形似是 巧에 의지하여 이루어지고 줄은 형사에서 자유스러워졌을 때 나

11) 李珣 : 栗谷全集書 拾遺 卷六 文策, 辭約而理當 言近而指遠 卒澤於道德 仁義炳如也

12) 정요일 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p.319.

13) 朱子語類 作詩須從陶柳中乃佳 不如是 無以發蕭散沖淡之趣

14) 老子 4. 道沖而用之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15) 老子 45. 大盈若沖 其用不窮

타나는 자태다.

충담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중 충담을 든다.

잠자코 소박하게 사니,	素處以默
오묘한 기틀이 은미하다.	妙機其微
지극히 조화된 기운 들이마시고,	飲之太和
외로운 학과 함께 날아다닌다.	獨鶴與飛
마치 남풍이,	猶之惠風
부드럽게 옷에 불어오는 것 같다.	萋萋在衣
긴 통소의 소리 듣고서,	聞音修篁
좋아하면서 신고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美曰載歸
그것을 만나면 깊지 않으나,	遇之匪深
그것에 다가서면 더욱 희미해진다.	卽之愈稀
만약 형사를 얻어	脫有形似
약수하면(본질은) 없어진다.	握手已違

사공도는 충담을 제2격으로 평가했는데, 율곡은 제1격으로 올려놓았다. '소처이묵'의 생활을 하면서 묘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말에 사로잡히고 관념에 잡히면 묘기는 사라진다. 이는 莊子 「則陽<sup>16)</sup>」에 근거를 둔 듯하다. '형사는 摹寫로 그림의 바탕이지만 만약 그것에 집착하면 氣韻不生하고 본질은 변한다. 요는 형사를 파악은 하되 刻意加工치 말아야 한다'<sup>17)</sup>. 그래야만 충담의미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淡은 既成의 주관에 의해 재단하지 않기 때문에 물경과 자아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의경이다. 충담의 내용은 율곡의 생활상과 유사하다.

16) 莊子, 雜篇, 則陽, 或不言而飲人以和. 직양편의 내용은 大道란 自然無爲하며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것이므로 非言非默 속에서 그 妙理를 깨달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말에 의존하거나 有無란 관념에 사로잡히면 대도의 奧妙한 境地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이 篇에서 말하고 있다.

17) 崔珍源,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성대대동문화연구원 1996, p.81.

본래 산수를 좋아하여, …… 뒤에 석담정사를 개축하였는데 방안을 오로지 도서로 갖추었고, 마음을 玩索하여 高明케하여, 冲恬의 뜻을 기르고 그 靜一한 공을 쌓으니, 이로부터 학문이 더욱 정밀하고 행실이 더욱 닦여져서, 도가 날로 더욱 높아지고 이름이 날로 더욱 높아지니, 따르는(從遊) 선비가 날로 더욱 많아졌다. 강마(講磨)하는 거룻에 때때로 冠童과 함께 水石을 배회하며 노래를 읊어 스스로 즐기니 蕭然히 出塵의 생각이 있으며 일체 세상 맛에는 담박(泊如)하였다.<sup>18)</sup>

石潭에서 精舍를 짓고 마음을 완색하여 고명케하고 증엽한 마음가짐과 정밀한 공을 쌓아 수석을 배회하며 노래한 시는 소연히 출진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뿜어내는 운치인 담박은 탈세속적[老莊의] 경향이 있다. 제2격으로 놓은 형자집의 한미청적도 이와 같은 성향을 지닌다. 그는 '이 집을 읽으면 심기과 평화로워 마치 작은 수레를 타고 마음내키는 대로 화초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권세와 이익의 하려함을 보기를 멀리 할 것이다'<sup>19)</sup>라고 한 것이 뒷받침한다.

素處妙機는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소박한 심리에서 山水의 樂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서 드러난다. 재단하게 되면 情의 가락이 깨어지고 만다. 그래서 율곡은 雕繪繡藻하여 정을 읊기면 마음이 어지럽게 된다(移情蕩心)고 했다.

율곡이 無彫琢之巧를 주장한 것은 기교에서 오는 미보다 기교의 일탈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미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연스러움에 인위(묘사, 대상한정)를 보태면 自然相을 잃게된다.

18) 李廷龜, 謚狀 『율곡전선』 권36, 부록4

雅好山水…… 後改築石潭精舍 一室圖書 玩心高明 養以冲恬之趣 積其靜一之功 自是學益精 行益修 道日益尊 名日益高 從遊之士日益衆 講磨之暇 時與冠童婆娑 水石 詠歌自娛 蕭然有出塵之想 一切世味泊如也

19) 이이, 『정언묘선』, 「亨字集」, 閑美清適, 讀此集則心平氣和 如乘小車 隨意行于花 踐草經 勢利芬華, 視之遊矣.

……旨趣의 精과 성율의 조화가 모두 자연(無作意·절로)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牽強作意와 雕朽鏤水만 일삼는 후인들과 같겠는가.<sup>20)</sup>

충담소산한 시는 풍격이 자연스러움에 근본을 두기 때문에 시법에  
꼭 구애되지 않는다. 다만 사물을 표현함에 있어 인위적인 것으로 덧붙  
태어서는 안되고, 자연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

굽혀서 집으면 곧 그것이다.	俯拾卽是
그것을 이웃에서 취하지 않는다.	不取諸隣
(중략)	

잠깐 정을 깨달음에,	薄言情悟
유유한 천연의 움직임이라.	悠悠天鈞

-사공도의 24시품 중 〈自然〉-

이는 規矩에 얽매이면 졸렬하여지고 彩繪에 몰두하면 그림이 천하여  
진다. 筆은 簡하나 形은 절로 갖추어지니 자연을 터득한 것이다라는 황  
휴복의 화론의 逸格과 상통한다.

또한 율곡은 산수 자연을 즐기는 방식과 유형까지 밝혔다.

士가 金剛에 가서 그저 風光만 보고 山水의 趣意를 깊이 파악하지 못 한다  
면 백성이 날마다 사용하면서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洪丈(仁祐)과 같은 이  
는 가히 산수의 깊은 趣意를 안다고 이를 만하다. 하나 단지 산수의 취의를 알  
뿐 ‘도체’를 보지 못한다면 산수를 아는 것이 귀할 것도 없으니 홍장의 앞이 어  
찌 여기에 그치겠는가.<sup>21)</sup>

20) 李珣, 拾遺 卷三, 「與宋頤庵」, 旨趣之精 聲律之協 咸出於自然耳 何嘗若後人之  
牽強作意雕朽鏤水者之所爲哉

21) 李珣, 앞의 책 卷十三, 「洪恥齊仁祐遊楓嶽錄跋」, 士之遊金剛者 亦目見而已 不能  
深知山水之趣 則與百姓日用而不知者 無別矣 若洪丈 可謂深知山水之趣者乎 雖  
然 但知山水之趣 而不知道體 則亦無貴乎知山水矣 洪丈之知 豈止於此乎

율곡은 遊山水에서 흥취와 함께 도체를 중시했는데, 그것은 무작의의 자연상을 드러낼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亨字集』에서 “한가로이 지내면서 스스로 즐거움을 얻은 것으로써 우흥에서 나왔으니 사색이 이를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sup>22)</sup>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道體는 ‘自然’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함부로 자아의 의식과 정감으로 한정하면 物의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형사를 하면 사물이 한정되고, 한정되면 깊이를 잃고, 情에 치여 충담의미를 잃고 만다.

고산구곡가중 2곡을 든다.

一曲은 어디 밭오 冠岩에 히 비췌다  
 平蕪에 니 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綠罽을 노코 벗 오논 양 보노라 (高山九曲歌)

이 작품은 卽景生情에서 온 서경이다. 이는 즉경에서 오는 즉감으로만 나타내고 典故나 과거의 影象에 의존하지 않았다. 작가가 지향하는 의식의 내용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산수경치에서 우리는 浩然의 세(氣)를 맞볼 수 있다. 그리고 평온한 가운데 沖融한 맛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담박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담박한 가운데 자연의 造化를 融會시켰다. 율곡은 이러한 형상을 산점투시로 일곡의 산수를 표현했다. 초장은 올려다 보는 高遠이고 중장은 가까운 곳에서 멀어지는 平遠이며 종장은 석담 너머 현실을 보는 深遠이 곧 그것이다. 심미적 시선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하는 산점투시는 自然의 造化를 표현해 내는 방식이다. 그리고 ‘심오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깊이 들면서도 열게 나와야 하며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퇴고한 흔적이 없어야 한다.’<sup>23)</sup>

22) 李珣, 앞의 책, 從容自得, 出於寓興, 非思索可到.

23) 임종욱, 『중국문학에서의 문장체제 인물 유과 풍격』, 이회, 2001, p.493.

이는 '자연의 조화와 더불어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산천의 기맥을 움직이고 산천의 形神을 관통하고자 한 것이다.'<sup>24)</sup> 여기에서 우리는 幽閒하고 寧靜한 예술 경계를 맛볼 수 있다.

### 3. 결 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담의 미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담의 美는 自然을 理念으로 한다. 즉 自然은 美的 理念이고 淡은 美的 內容이다. 담을 기저로 한 각 풍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담은 至味를 淡으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담은 대립되는 심미범주인 濃[華麗]을 완벽하게 融會시킨 예술적 성취에서 온 풍격이다.

枯淡은 華靡한 것을 剪去하고, 평범한 형식 속에 미적 극치를 드러낸 풍격이다. 고담은 理趣를 중시한다. 그리고 고담의 枯는 '自然'을 이념으로 하되 典故를 모범으로 삼으며 法度에 맞고 노장적 無爲의 속성을 제한하면서 철저히 유가정신을 지향한다.

冲澹은 物에 觸發된 情을 소박한 언어로 자연스러운 의경을 이룬 데서 오는 美이다. 이는 幽閒하고 虛靜한 心理로 읽고 형상화한 예술경계에서 오는 담박한 味이기도 하다. 충담의 冲은 老·莊에 미적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규범적인 사회법도와는 상대적인 逸의 속성을 지닌다.

---

24) 張法, 유중화의 옮김,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p.375.